

11월 20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1월 20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다우 8,000선 붕괴’ [다우: 7,997.28pt (-5.07%)	다우 지수는 8,000선이 붕괴되며 5년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다우 지수가 증가 기준으로 8,000선이 무너진 것은 지난 2003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주요 지수는 일제히 5~6%의 하락률을 기록했음.
[유럽마감]금융·원자재 주 약세...4%대 급락	19일(현지시간) 유럽 블루칩 주가지수인 다우존스 유로스톡스600지수는 장중 4%대 밀리며 5년래 최저수준을 기록. 세계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는 가운데 금융사와 원자재 생산업체의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투심이 위축. 한편 주식 파생거래로 4억달러 이상 손실을 입은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치뱅크는 런던과 뉴욕 지부에서 900명 가량을 감원할 계획.
"EU, 경기부양에 1천 300억유로 투입"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은 인터넷판에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EU 27개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1%를 출연하는 방식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주제 마누엘 바로수 위원장이 이끄는 EU 집행위원회가 오는 26일까지 이 계획을 확정된 뒤 내달 10일 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보도.
금융주 추락 어디까지	다우 구성 30개 종목이 일제히 하락세로 마쳤음. 특히 씨티그룹(C)은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로 23.4% 떨어지며 사상 최대의 낙폭을 기록하였음.
GM-포드-야후 `급락`	미국 1,2위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F)는 각각 9.7%, 25% 밀려났다. 몰락 위기에 처한 자동차 산업을 구제하기 위해 GM과 포드, 크라이슬러 `빅3` 경영진은 이틀째 의회에 출석, 지원을 촉구했음.
미국 10월 소비자물가 `사상최대폭 하락`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사상 최대폭으로 추락했음. 경기후퇴와 맞물려 물가가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노동부는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대비 1% 하락했다고 밝혔고, 이는 지수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1947년 이래 가장 큰 낙폭으로 마켓워치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0.9%도 넘어선 하락폭 수준임.
미국 10월 주택착공-허가 `사상최저`	미국의 10월 주택착공건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음.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와 맞물려 주택시장 침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상무부는 10월 신규주택 착공건수가 연율 79만1,000채(계절조정)로 전월대비 4.5% 감소했다고 밝혔고 이는 지난 1959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 수준임.

제목	주요 내용
‘美 경기후퇴 1년이상 지속’-FOMC 의사록	연준은 미국의 경기후퇴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음. 연준이 공개한 10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미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완만한 위축(contract)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음. 연준이 ‘경기후퇴(recession)’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는 사실상 후퇴 국면이 1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됨.
유가 나홀췌 하락 [WTI: \$53.62 (-\$0.77)]	국제 유가가 재고증가와 수요둔화 전망으로 나홀췌 하락세를 지속했음. 원유 재고가 증가한데다 경제지표 악화로 경기후퇴(recession) 우려가 고조되면서 수요둔화 전망을 부추겼음.
[중국마감]부양책 기대 + 국채수익률 급락, 2000회복	19일 대부분의 아시아 주요증시가 하락한 가운데 중국증시는 추가부양책에 대한 기대와 중앙은행 채권 수익률의 급락으로 6%대 급등하며 전일의 하락폭을 모두 만회.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05% 뛼 2,017.47을, 선전종합지수는 6.17% 오른 557.37을 기록.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